

# 시간 측정 2만5000년 역사 고스란히 응축

시간을 길들이다

니컬러스 포크스 지음, 조현욱 옮김

'시계는 부품으로 구성된 소 우주'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시계 전문 잡지 '온 타임'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니컬러스 포크스다. 그는 시계에 관한 24권 이상의 책을 펴낸 이 분야 전문가다. 아울러 그는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위크' 등에 시계를 주제로 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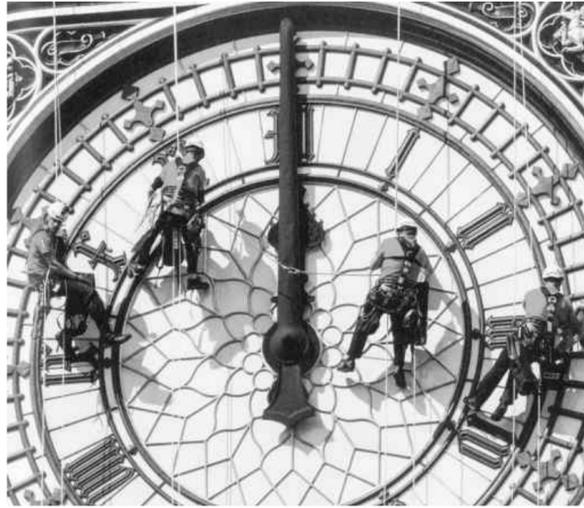
포크스의 신작 '시간을 길들이다'는 그러한 연장선의 결과물이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2만5000년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사실 인류는 태초부터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태양이나 달,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던 중요한 회합을 기억하던, 이 과정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저자는 시계의 매력에 빠지면 끝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세계로 들어선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과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집트의 파라오, 18세기 프랑스 여왕, 20세기 재계의 거물, 혹은 좀더 겸손한 사례로는 197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저자도 포함된다.

인류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추는 데 수천 년이 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두 종류의 역법(曆法)이 19년마다 한 번씩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예로 아테네 메톤은 자신의 이름을 부여한 역법을 고대 그리스부터 기원전 46년까지 사용하는 데 기여했다.

최초의 시간 측정 장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인 '이상고



고딕 양식의 화려함을 뽐내는 웨스트민스터의 대형 시계 빅벤. <까지 제공>

뼈'로 추정된다. 표면의 장식용 홈은 2만5000년 전 파여졌다. 3차원 바코드와 비슷하며 빛살처럼 새겨져 있는데 "기록을 위한 눈금막대의 일종으로서 선사시대의 계산자 혹은 계산기"로 보인다.

이집트 초기 물시계는 '구멍이 있는 양동'이다. 이집트 카르나크신전에서 발견된 이 화분은 기원전 1415~138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화분에 채운 물은 바닥 근처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천천히 새어나오는데 이때 남아 있는 물의 수위"를 매개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시간 측정에 대한 열망은 기술력을 갖춘 시계로 전이된다. 중국 송나라의 천문학자 소송이 만든 천문시계는 물이라는 동력을 이용했다. 시계 역사에

서 '잃어버린 고리'로 조명을 받고 있다.

영국 세인트 올번스 성당에 설치된 천문시계는 처음으로 "똑딱"이라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 기계식 시대를 연 것인데, 이를 계기로 유럽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웅장한 천문시계를 제작한다.

이후부터 시계는 공적인 영역을 넘어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 초기의 개인용 시계는 정확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소장자 기품을 높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는 만찬자리에 배 모양의 시계를 올려놓고 시선을 끌었다.

시계는 기능을 넘어 아름다움을 표상한다. 시계공 브레게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위해 보석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교하게 설계된 탓에 그녀 사후 34년이 지나야 완성됐다.

오늘날 최고 시계 브랜드는 파텍 필립, 롤렉스, 에겨르롤트르, 오메가, 브레게, 카르티에 등이다. 특히 세계 빈티지 시계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파텍 필립, 손목시계를 대중화한 카르티에, 우주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를 만든 오메가까지 정밀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시계 등은 관심의 대상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놀라운 시계의 파노라마를 만날 수 있다. 한 가지 우리나라 해시계, 물시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까지>3만3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책을 브런치로 먹는 엄마-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하지만 정작 자신은 책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엄마들, 독서는 서툴지만 책을 통해 자신을 찾고 성장하고 싶은 엄마들, 이 책은 이런 엄마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엄마들이 독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며 아울러 엄마 인생의 2막을 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담았다. <한울림>1만6000원



▲황칠의 기적=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자연치유 황칠 비법을 소개한다.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은 황칠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환, 차, 된장, 한약재 등으로 가공해 먹을 수 있도록 응용 가능한 약재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황칠나무의 해독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양기형을 보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실었다. <상상출판>1만6500원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지난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강지이 시인의 첫 시집. 시집은 "지금-여기"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열어 쫓히는 이채로운 시편들을 선보인다. 독특한 화법과 개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행과 행 사이를 과감하게 건너뛰는 여백의 공간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창비>9000원

▲사무라이=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묘사한 소설 '침묵'으로 명성을 얻은 엔도 슈사쿠가 15세기 초 일본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 책에 등장하는 네 명의 사무라이는 멕시코와 직교역을 원한다는 영주의 서신을 멕시코 총독에게 전달하고자 먼 길을 떠난다. 멕시코를 거쳐 유럽대륙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전략과 술수, 충성과 배신, 개국과 쇠국 등을 다룬다. <유진트리>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달을 줄걸 그랬어=선불교 문학과 도교 사상에 뿌리를 둔 철학적인 메시지로 어른 아이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가 존 무스의 대표작이자 2006년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한 책이다. 에디, 마이클, 칼,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스틸워터가 불쑥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욕심 가득한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준다. <달리>1만6000원

그에 맞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구겨진 마음', '거짓 소문', '응원 편지' 등을 통해 거짓말이 타곤 무스의 대표작이자 2006년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한 책이다. 에디, 마이클, 칼,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스틸워터가 불쑥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욕심 가득한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준다. <달리>1만6000원

▲거짓 소문을 밝혀라=홍흥의 작가의 책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선정 작품이다. 작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재민이네 가족이 큰 집으로 이사한다고 소문이 나자

▲방귀 귀어도 돼?=우리 몸에 대한 과학 정보를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하는 마리나 톨로사 시스테레의 신작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가스, 방귀와 트림을 통해 방귀라는 말만 나와도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과학적 탐구로 연결시킨다.<그레이트북스>1만4000원

# 선한 사람들도 왜 불의 앞에만 서면 방관할까

방관자 효과

캐서린 샌더슨 지음, 박준형 옮김

2017년 4월 69세의 의사 데이비드 타오는 시카고 오헤이 국제공항에서 예약을 과도하게 받았으면서 좌석을 포기하라는 항공사의 요구를 거절하다 강제로 끌려나갔다. 보안요원 3명이 비행기 복도를 따라 질질 끌고 가는 상황에서 그는 좌석 팔걸이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코뼈와 치아 두개가 부러졌다. 항공기 탑승자들이 SNS에 영상을 올리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지만, 사람들은 항공기 탑승객의 '침묵'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은 여성 승객 1명뿐이었다. 누구도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부정을 목격할 때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누군가 나서겠지 생각하며 굳이 자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을 정신분석학자들은 '책임분산'이라 칭한다. 책임분산은 희생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함께 있는 숫자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

암허스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캐서린 샌더슨의 '방관자 효과-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는 다양한 사례와 심리학 연구·실험을 분석해 불의가 발생했을 때 왜 소수만 타인을 돕고, 이외의 사람들은 침묵하는지 살펴본 책이다. 최근 당사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던 광주 고등학교의 '따돌림' 역시 가해 학생들의 잘못과 함께 다수 학생들의 '침묵'도 큰 이유였고, 우리 모두 이런 '침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동 앞에서 침묵하려는

자연스러운 본성 이면에 깔린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고 또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을 당시 감옥에서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 포로들에게 자행했던 고문과 치욕적인 행태를 고발한 조 다비 등 놀라운 도덕적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의 사례와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소개한다.

책의 전반부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에 개입하는 상황과 심리적 요인,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고 침묵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이들 요소가 학교에서의 따돌림, 대학에서의 성폭력, 직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등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지 보여준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이 성향과 관계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도덕적 저항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공공의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뽀퍼>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